

용산개발 청산 절차... 광주·전남 투자업체 어찌나

지역연고 건설사 3곳 320억 손실 불가피 "유동성 위기는 없어...소송 등 공동대응"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불리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사로 이름을 올린 광주·전남지역 연고 건설사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청산 절차로 투자금의 전액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부지 원소유자인 코레일(한국철도공

원 가운데 지역연고의 A건설사가 200억원(2%), B건설사가 100억원(1%), C건설사가 20억원(0.2%)을 각각 투자했다. 일단 청산 절차로 인해 투자금은 공중분해됐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한 가운데 지역연고 업체들은 또 한편 약재를 만나 '최악의 상황'에 부딪힌 셈이다.

업체들은 당분간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이진부터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행히 유동성 위기 등 큰 타격을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투자금 상당 부분을 손실 처리한 상태여서 장부상 손실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경영위기는 3~4년 전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았고, 현재도 재무적으로 큰 변동은 없다"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코레일측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투자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C사 관계자는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손실 반영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대규모의 지분을 가진 회사들의 분위기를 지켜보는 한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 등 다각

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사업계약 해지 여부가 이달 29일 가라지기 때문에 사업이 청산됐다고 보기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직 코레일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레일이 땅값을 챙길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아닌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 청산을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며 "주민 피해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첫 LED 조명 필드테스트 한국광기술원 가로등·보안등 우수 제품 선정

한국광기술원이 11일 국내 최초로 LED가로등과 LED보안등, LED터널등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마치고, 선정된 우수 제품 선정 결과를 서울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LED조명 필드테스트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LED가로등 11개사, LED보안등 19개사, LED터널등 3개사를 모집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수행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업체에게 실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필드테스트 보고서를 제공, 공인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한국광기술원은 LED조명 성능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LED조명 보급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해 6월 경기도 탄천 서남물체생성센터 등에 LED조명실증 단지를 구축,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은 올 경제성장률 2.8% → 2.6%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3.8%를 제시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예상치는 정부가 지난달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은은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2%에서 올해 1월 2.8%로 내린 바 있다.

김 총재는 "지난해 3분기 0.1% 성장

은의 견제에 대해서는 "쉬운 정책보다 올바른 정책이 중요하다"며 금리동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정책조화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중요한 요소로 한다"며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 각각 긴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양쪽의 이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며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75주년 이벤트 삼성전자는 이날 23일까지 그름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가전제품을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삼성전자 40일간의 S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LED 기술센터 작년에만 163건 LED제품 공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LED/LD패키징시험생산기술지원센터가 KOLAS(국제공인시험) 인정을 거쳐 지역 LED산업체의 지역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일 광주테크노파크 LED/LD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11년 KOLAS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뒤 총 830건의 시험의뢰를 받아 293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면서 LED제품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역할과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활용기관 74개에 대해 384건의 시험의뢰를 받아 163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고, 올해도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의뢰 건수가 12.5% 증가했다.

현재 LED제품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지만 실제 LED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6개소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조명기기' 및 '광원 측정'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일반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3개소에 불과한데, 그 중 광주TP LED/LD센터와 한국광기술원 등 2개소가 광주에 있다.

2011년만 해도 LED업체들은 공인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주일 이내에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최근 LED산업의 발전과 인증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 광주TP LED/LD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올해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신뢰성 및 시험평가 장비를 추가 구축해 지역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연 2.7%...6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로 6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연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그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목소리로 한

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총액한도대출로는 금리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새 정부의 정책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경기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할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한은이 당장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택함으로써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유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유동성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꺼내든 부양책이 2분기 내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점검하면서 건전성을 아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기공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상봉)가 11일 '2013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해당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062-600-3030).

/임동률기자 exian@

기아차 '힐링로드 오토캠핑 이벤트'

50가족 홈페이지 접수 선발해 5월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캠핑장에서 열리는 오토캠핑에 초청 예정이며 참가 고객들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올 뉴 카렌스' 한 대와 캠핑장비 일체를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3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의 이벤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 여부는 5월3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9.80(+14.22)	▼ 코스닥지수 544.30(-9.46)	▲ 금리(국고채 3년) 2.63%(+0.15)	▼ 원·달러 환율 1129.10원(-6.60)
----------------------------	--------------------------	------------------------------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기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물동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자부담 550 ~680만원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TEL.062)943-8804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1F